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12월 8일(금)

(윤력 10월 26일)

Пятница

8 декабря 2023 г.

№ 47 (1206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День Героев Отечества



▲ 12월 9일을 러시아에서 조국 영웅의 날로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12월 9일을 우리는 조국 영웅의 날로 기념합니다. 전장의 한가운데서 사력을 다해 용맹스러움을 드러낸 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평화의 시대를 위해 큰 공적을 남기셨고, 수세대에 걸쳐 러시아에 헌신적 충성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용맹스러움과 애국심, 단결의 전통은 우리 국민의 무궁한 저력의 원천입니다.

대조국전쟁 시절에 소비에트의 병사들과 후방 노동전선의 근로자들이 이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조국과, 자신의 가정과 치명적 위협으로부터 미래의 세대를 지켜냈습니다.

이들의 업적에 대한 추념은 사할린과 쿠릴의 주민들을 포함해 러시아의 장병들이 특수군사작전 구역에서 적들에 맞서 영웅적인 전투를 수행하게 합니다.

우리의 선조와 아버지와 형제들을 본받아 우리의 청년들이 조국의 영토를 사랑하고, 이로써 전투에 임하며, 평화로운 일터에서 일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앞으로 자유로움과 독립적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동향인 여러분, 조국 영웅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강건함과 행복과 새로운 성취를 기원합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할린주 보건부 장관, 모스크바에서 주내 의료체계 설명

모스크바에서 열린 <2023 - 국민 보건>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보건분야에 대한 주요문제들을 논의 했다. 이 자리에서 사할린주 블라디미르 쿠즈네쎌브 보건부 장관은 사할린과 쿠릴의 의료 발전과 의료 서비스 편의와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지원의 품질을 개선한 중요한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3일(일) 밝혀졌다.

장관은 무엇보다 먼저 의료서비스의 편의성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의 표준을 지적했다. 사할린주에서 응급구조체계는 응급신호를 받은 날 바로 제공하며, 내과의사와 지역 소아과 의사와의 예약은 2일, 전문의와 예약은 7일에 걸쳐 제공된다. 또한 섬 지역에서는 주내 모든 의료기관 간 연락을 제공하는 디지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 병원에 등록처를 제거하고 전문의와의 예약이 24시간 1-300 단 일 콜센터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경우에는 세부과목 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받도록 하는 특별 진찰권을 받도록 했다.

블라디미르 쿠즈네쎌브 장관은 "우리는 오래전부터 의료 분야를 위한 디지털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그 덕에 우리는 응급

진료센터가 있는 가장 외딴 마을에서부터 중앙 병원과 의료정보 및 분석센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료기관과 총체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특히 환자들로부터 진료 후기를 받는 데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 디지털 체계로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품질과 방문한 의료시설이 제공하는 편의와 편안함이 어떤지도 묻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방면은 입원실을 상대로 하는 업무와 첨단기술지원 제공으로서 매해 환자들에게 60건의 새로운 수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해 우리는 평균 약 60건의 새로운 수술과 새로운 종류의 지원을 도입하고 있다. 4년 전에는 우리 지역 일부의 환자들이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 내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면, 현재 우리는 사할린 지역을 떠나는 환자의 수를 거의 60%까지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예전에는 우리가 절대 하지 않았던 20%의 수술을 이제 우리의 과제로 설정했다. 이는 심장이식, 골수이식, 대규모 연방센터에서 시술하는 어려운 어떤 수술들이다. (3면에 계속)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 2023 자원봉사자 시상

전 러시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을 앞두고 '마야크(등대)' 아트센터에서 2023년 유즈노사할린스크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도시 공공생활에 적극적인 참여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적극적인 시민 130여 명이 선정됐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가 전했다.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만 자원봉사자가 2만 명 넘게 등록됐다. 실제로 도움 요청에 선뜻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시민들은 훨씬 더 많다. 올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자원봉사자들은 사회적 기획에 적극 참가했으며, 도시 공공행사 진행을 수행했고, '우리 함께' 전 러시아 활동에도 참가하고, '학교 갈 준비 돕기' 연례 행사에도 참가, 실종자 수색도 도왔으며, 주인 없는 동물들을 돌보았고, 나무를 심으며,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왔고, 도시 생활의 다른 중요한 많은 행사들에 협력해왔다.

모스크바 전시, 사할린의 스포츠 소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주도로 러시아 박람회장(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국제 전시-포럼에서 사할린 스포츠의 날을 진행하고 방문객들에게 사할린의 스포츠 시설을 소개했다. 전시물에서는 북방 소수민족의 스포츠 부문이 특히 관심을 끌었다. 사할린 스포츠에 대한 전시는 12월 10일까지 열린다.

사할린주, 일주일 만에 급성호흡기 질환 37.8% 증가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11월 7일부터 12월 3일까지 급성호흡기 질환 환자는 2,653명, A형 독감 환자는 6명으로 기록된 가운데 감염률은 전주보다 37.8% 증가했다.

지난주에는 계절성 바이러스 감염이 7세 - 14세 연령층에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독감과 급성호흡기 질환 감염 상황은 증가 추세로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사할린주에서 신종 코로나19 감염은 79명이 확진돼 전주보다는 감염률이 낮아졌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11명은 17세 이하이며, 대부분의 코로나19 환자들은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5.1%가 폐렴 증상을 앓았으며, 코로나19는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가는데 그중 3.8% 환자가 중증으로 진단됐다.

새고려신문

2024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30주년 맞아

한국교육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전파

2023년 12월 10일은 사할린 한국교육원 개원 30주년이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사할린 한국교육원에 대한 이야기를 정승훈 사할린한국교육원장과 나누었다.

- 원장님, 우선 개원 30주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한국교육원이 그동안 진행한 주요 사업을 소개해주시다면.

- 큰 틀에서 보면 한국교육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전파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첫째, 교육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한국어 수업과 한국 문화수업이 있습니다. 둘째, 한국어를 채택한 학교들이 한국어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셋째, 사할린 내 각종 한국어/한국문화행사를 지원하는 일입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나 K-Pop 대회 지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넷째, 올해 시작한 사업인데요, 4년제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원하시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On-line 코스를 사할린국립대학교에 개설해서 10월부터 강의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사할린주 여러 지역에 분포한 한글학교를 지원하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 30년간 교육원 수업을 수료한 학생들의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요?

- 이것은 통계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최근엔 러시아인들이 한국어 수업을 많이 신청하는 추세인데요, 우리 동포들, 특히 동포 학생들이 많이 신청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원에서 교육원 자체 수업 외에도 한글학교 수업, 한국어 채택학교도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지원인가요?

-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한글학교 지원은 재외동포청 지원 사업(외교부)이고요, 한국어 채택학교 지원은 교육부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어 채택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자료 및 도구 지원과 한국어 관련 행사를 합니다. 내년엔 한국어반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신청할 것입니다. 예산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글학교는 학생 숫자에 따라 예산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예산 사용 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사 인건비, 수업자료 구입, 한글 관련 행사, 임차비용 등에만 쓸 수 있고 자산 취득한다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9월 1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 현재 교육원 수업에 몇 명이 수강하고 있고, 어떤 교육과정인지요?

- 한국어 수업의 경우 입문반, 초급반, 중급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 문화수업 2개 반(한누리반, 주부반)과 1월에 추가 개설된 한국어와 한국문화반이 있습니다. 지금 수업을 받는 사람은 230명 내외입니다

- 현재 교육원에 강사진과 몇 명의 강사가 강의 중인지 궁금합니다. 한때 한국어교사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 현재 강사는 모두 8명(한국어 교사: 임 엘비라 교수님, 코르네에바 이나 교수님, 정혜경 동양김나지 아 선생님, 이 알비나 선생님, 코르트코바 알료나 선생님, 문 베로니카 선생님; 한국문화 강사: 설원화 선생님,



박영자 선생님)입니다. 한국어 수업은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과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 교수님들, 그리고 졸업한 한국어나 학생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범이 바뀌어서 졸업을 앞둔(교사 자격 취득 전) 학생들도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교육원 교육수요자 만족도 결과를 보고했는데요, 설문조사 항목 중에 '교사들은 수업을 충실하게 운영하며, 학습 수준에 맞게 학생을 지도하는가?'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이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응답자 126명 중, 116명이 '매우 그렇다'고 했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수강생이 나머지 10명이었습니다.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강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뿐이죠.

- 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원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현재 전일제(정식) 직원은 3명이고, 1명은 계약제 회계사입니다. 1명은 교육원의 전체 살림과 행정일을 담당하고 있고, 1명은 통(번)역과 행정,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어린

이 한국어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명은 운전과 교육원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사태 이후, 제재 상황에서 한국과의 교류가 많이 감소되었는데 교육원에서는 이와 관련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

- 직항이 없어져서 너무나 아쉬움이 큼니다. 예전처럼 직항이 있다면, 한국과 많은 교류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동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젠가 직항이 다시 개설 될 때를 대비해서 온라인 교류나 소수 학생들일지라도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일부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한국 방문 연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매우 안타깝습니다.

- 최근 어떤 교육원 행사들이 실시됐는지요?

- 지난 여름방학 때, 한국어/문화 캠프를 열었습니다. 코르사코브를 비롯하여 아나바, 네웰스크, 흠스크 등 지방도시에서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10월 20일 말하기 대회, 12월 1일 K-Pop 축제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엔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30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 앞으로 사할린한국교육원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 지방 도시(흠스크, 아나바, 네웰스크, 돌린스크, 마카로브) 학교들이 한국어 채택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한글학교가 없는 도시들에 한글학교 설립을 돕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맡은 일은 교육과 문화 분야이

기 때문에, 한국과의 문화 교류에도 관심을 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할린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 교육원장으로서 사할린동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세계 어느 곳에 살더라도 우리 동포들은 평균 이상으로 잘 삽니다. 머리가 좋고 부지런하기 때문입니다. 동포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고 뿌듯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말을 사용하고, 쓸 줄 아는 동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어 아니고 러시아에서 살 것인데, 한국어가 왜 필요해?'라고 말씀하시면,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러시아에 살더라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우리 말과 글을 반드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말과 글(언어)에는 그 민족의 사유와 문화의 정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애타투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가 한국어이고요, 앞으로 한국 경제와 문화는 더욱 성장해서 한국은 최고의 선진 강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포 여러분 한국어를 배우시다! 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원 개원 3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귀 교육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회 통합창작축제 열려

12월 2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지역 통합창작축제인 <특별한 재능들의 섬> 이 처음 개최돼 행사가 주 민속창작센터에서 진행됐다. 이 축제는 12월 3일 전 세계가 기념하는 국제 장애인 날에 맞춰 열렸다. 참가자들은 5세부터 87세까지 남녀노소 200여 명으로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이들의 인도자와 교사, 특수 장애 성인 창작예술단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노래 공연, 가무, 예술 낭독 등 여러 장르에서 40개 이상 통합예술의 상연 목록을 선보였다.

Первый регион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инклюзив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роше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егион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инклюзив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Острова особых талантов» впервые состоя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2 декабря. Он прошел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Фестиваль приурочен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дню инвалидов, который отмечается во всем мире 3 декабря.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более 200 человек от 5 до 87 лет: дет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и инвалидностью, их наставники и педагоги, а также творческие взрослые коллективы, в которых есть люди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Гостям фестиваля представили более 40 номеров инклюзивного искусства в самых разных жанрах: вока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е постановк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чтение.

대조국전쟁의 역사 시험에, 100명 이상의 사할린 주민들 참가

'대조국전쟁의 역사 시험' 국제 행사가 12월 1일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에 사할린 주민 100명이 참가했다고 도서관 측이 전했다.

시험에는 대조국 전쟁에 대한 40개의 문제가 출제됐다. 수험생들은 공격작전 및 작전 진행지 명칭과, 군 기관의 명칭을 기억해야 했다.

행사의 모든 참가자들은 자격증서를 받았고, 시험 결과는 도서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Более 100 сахалинцев написали тест по истори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Международная акция «Тест по истори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прошла 1 декабря в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00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СахОУНБ.

Тест включал в себя 40 вопросов о ВОВ. Участникам акции предстояло вспомнить названия наступательных операций, места их проведения и имена военных деятелей.

Все участники акции получили сертификаты. Результаты теста размещены на сайте библиотеки.

사할린의 학교 교장, <교육의 지휘관들> 경연 우승에 올라

'러시아는 기회의 나라' 대통령 주최 <교육의 지휘관> 경연에서 10명의 우승자들 속에 유즈노사할린스크의 6호 중학교의 나탈리아 브로브키나 교장이 포함됐다. 전문 경연의 결

승전에는 지역 단계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교사들과 교육 분야의 운영자 265명이 경쟁을 치렀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경연대회는 대통령 아카데미(러시아 연방 대통령 지원 국민경제 및 국가서비스 러시아 아카데미) 행사장에서 진행됐다. <교육의 지휘관> 기획은 러시아 교육부의 후원으로 국민 기획 '교육'의 <모두를 위한 사회적 승진> 연방기획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나탈리아 브로브키나 교장의 말에 따르면 경연의 결승전은 독특한 행사였으며 국내 여러 지역의 숙련된 교육자들을 비롯해 교육 운영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교육의 지휘관> 경연 참가자들은 시험을 치를 뿐만 아니라 계몽-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기도 했다. 경연 결과 발표에 따라 교사들과 교육 운영자들은 러시아 연방 교육체계의 인적자원 명단에 추가로 올랐으며, 기획 협력자로부터 상을 받았다.

원격 예선 경연에서는 교육 분야의 지도자 1만4천여 명과 교사 5만7천여 명이 참가했고, 지역 준결승 대면 경연에는 2천183명의 교육자들이 출전했다.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школы вошла в число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Флагманы образования»

Директор СОШ № 6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талья Бровкина стала одним из 10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Флагманы образования» президентской платформы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8면에 계속)

뜨거운 환호 속에 진행된 '사할린 K-pop'축제

지난 1일(금) 제10회 '사할린 K-op'축제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행사는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사할린주 한인협회, 사할린주 한인청년회의 주최로 청소년들의 환호 속에 진행되었다. 축제가 저녁 6시였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행사장은 케이팝 팬들로 가득차 있었다.

참가자들을 환영한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임 엘비라 학장은 사할린 케이팝 축제의 역사배경을 이야기하고, 행사 주최자와 심사위원들을 소개했다. 올해 본선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60개의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우선 예선에서 영상심사를 비롯한 심사가 있었고 최종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댄스 부문 15팀, 노래 부문 - 8개 목록)이 이날 축제 무대에 설 수 있었다. 경쟁에 댄스 부문 15개 팀, 노래 부문 8개의 공연이 있었다. 10번째 축제로서 이날 행사 분위기는 더욱 뜨거웠다. 관객들은 각 공연을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했고 노래와 댄스 - 케이팝 음악을 마음껏 즐겼다. 청소년들은 이날 퀴즈대회와 추첨에 참여하고, 상품권 또는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앨범을 선물로 받았다. 또한 모든 희망자들은 이날 댄스마스터클라스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 활동교실은 모든 10회 동안 '사할린 k-pop'축제에 참가한 알렉산드라 드료모와 '슬로우 모션'댄스학교(유즈노사할린스크) 강사가 담당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날 모든 공연이 높은 수준이었으며, 수상자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였다. 노래 부문에서 1위는 오스트로브스카야 예바에게 주어졌고, 댄스부문에서는 "No next(노넥스트)"팀이 우승했다. 모든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품으로 시상했다.

많은 관심과 뜨거운 환호 속에 진행된 제10 회 '사할린 케이팝 2023'축제가 막을 내렸다. 다음 축제가 기대된다.



(취재: 글/드미트리 포구다예브, 사진/이예식 기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 실시

지난 4일(월) 서울에서 재외동포청 주최 아래 8박 9일간 2023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가 시작되었다. 연수에 총 9명이 참가한 가운데 2명은 중국 언론인, 7명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 러시아 동포 언론사 기자들이다. 이 연수사업은 올해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이어받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다.

연수의 변함 없는 목적은 한국어 기사작성 및 취재 역량 향상 연수를 통한 재외동포 언론인의 전문성 강화, 국내 언론사(언론인)와 재외동포 언론사(언론인) 간 정보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번에 중국 홍콩강신문사, 카자흐스탄 '고려일보'신문사, 키르기스스탄 '일치'신문사, 러시아의 '러시아의 고려인(러시아어)에 코레이츠'신문사와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기자들은 재외동포언론인의 취재 실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이론교육 및 실습, 국내외 미디어 현황 및 트렌드 분석, 스토리텔링 기사 쓰기, 한국 언론 핫이슈: 생성 AI(인공지능)와 저널리즘, 이주 외국인 참정권의 현주소, 아이템 발굴 노하우와 기사작성법에 대한 강연을 관심있게 듣고 많은 질문에 전문적 확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수강생들의 기사를 직접 분석해보고 기사 개선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이론 교육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수 프로그램에 따라 동포 언론인들은 모국의 발전상·전통문화 체험, 울산과 부산을 탐방하고 취재를 할 예정이다. 기자들은 현대자동차 공장 등을 시찰하고 연합뉴스 방송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동포언론인들을 위해 펼쳐진 환영만찬에서 재외동포청 최영환 차장은 "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민족정체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이 정책을 실행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동포는 바로 언론인들"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20, 40, 50대의 동포 기자들에게 이번 연수는 기자로서 자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기자 대다



수는 전문 언론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더 더욱 그랬다. 좋은 동포 기자 양성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돼 감사하고, 참가한 재외동포 기자들의 향후 활발한 취재활동과 유익한 기사 작성, 구독자와의 끈끈한 피드백 관계로 동포언론사들의 발전을 기대한다.

(서울에서 배순신 기자)

사할린주 보건부 장관, 모스크바에서 주내 의료체계 설명

(1면의 계속)

그의 일상 진료 업무에 관한 한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다."고 주 보건부 장관이 말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할린 지역에서는 48대의 이동진료차량이 운영되고 있다. 이동진료팀은 주 치과병원, 주 아동병원, 보건진료센터 등 3개 의료기관을 통합했다. 그래서 약 60명의 세부과목 전문 의가 팀을 이루어 사할린주의 가장 먼 곳까지 방문하여, 상담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1차 검진을 진행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돌봄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블라디미르 쿠즈네초프 장관이 강조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는 새로운 전문의 유치 문제로 연방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전례없는 지원정책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차 진료 전문의들은 80만 루블리까지의 소득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진출, 주택,가족>프로그램으로 이곳에 오는 의료인들의 배우자를 위한 사회 진출, 주택과 자녀를 위한 학교와 유치원 배정 등을 포함해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회의 중 논의한 또 하나의 문제는 의료기관들의 표준 통합이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새로운 병원 건립을 위한 민간 투자가 유치되었다.

앞으로 주에서는 흡스크, 마카로브, 돌린스크를 포함해 5개 지역에 새로운 의료기관이 문을 열 예정이다.

사할린 지역에 의약품 공급과 약품 공급의 특혜에 대한 주제도 간과하지 않은 가운데 사할린주 보건부는 특수군사작전 지역 참전자와 군복무자 치료를 언급하며, 사할린 지역에서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사할린주는 연방센터와도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흰 바람벽이 있어 / 백석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축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사쓰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꽃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조 얹어 대구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너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잠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다시 겨울. 날이 쌀쌀하
지요. 집안 온도가 조금 높은
편인가, 외출하면 상쾌한 기
분입니다. 얼굴을 감싸는 날
카로운 바람이 적당히 싫지
않을 만큼만 걷다가 도로 집
에 들어오곤 합니다. 따뜻한
집에서 이제 책을 꺼내 들지
요. 다시 백석. 쓸쓸한 표정의 이 박제가 되어 버린 시
인이 마치 살아 숨쉬듯 1941년 낯선 만주 어느 마을
자그마한 방에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리
운 어머니를 떠올리다가 이제는 대구국을 맛보는 저
녁 식사를, 그것도 헤어진 전 연인과 그녀의 남편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떠올립니다. 이토록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건만 라이너 마리아 릴케를 머릿속에
서 지울 수 없는 삶이구나. 시인의 깊은 슬픔이 유령
처럼 제 서재를 맴돕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야 어디 우리 사할린의 옛 어르신들만 할까요. 잃
어버린 시간들, 되돌릴 수 없는 잔인했던 세월이 야
속하기만 합니다. 저기 멀리 서글픈 역사의 이야기가
실타래를 풀어 헤치지 못한 채, 구석에 덩그러니 놓
인 기분입니다. 다시 겨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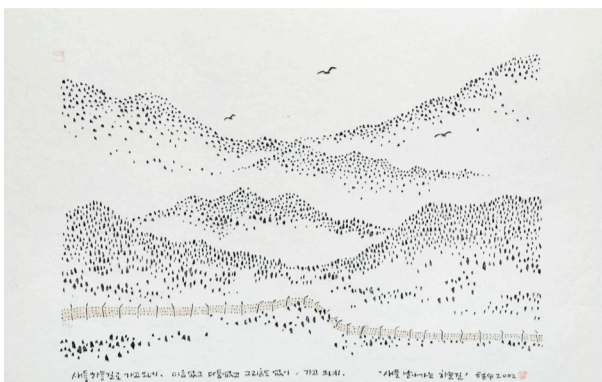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Из фондов СОХМ

Современная графика Кореи

Визуализация образной авторской философии втягивает зрителя в безграничное бел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жизни, где время бесконечно и циклично. Мастер ищет и находит устойчивые смыслы, перенося увиденные события и явления в личные знаки и символы, где изображение и смысл концептуально сосуществуют, эмоционально окрашенные в разные тональности. Глубокие эмоции-размышления заложены в произведении «Небесный путь, где парят птицы».



И Чоль Су (1954 г.р.)
Небесный путь, где парят птицы. 2002 г.
 «Птицы парят в облаках туда и обратно, туда и обратно... Парят без ненависти, раздоров или тоски».
 Бумага ханчжи, цветная ксилография. 50x71
 Поступление: с персональной выставки «В поисках гармонии» (СОХМ), 2017 г.
 КП-10284 Г/в- 4253

Горный пространственный пейзаж, выполненный композиционно в традициях классической восточной живописи. На дальних планах возвышаются друг за другом горные цепи с мягкими очертаниями. Вершины гор и пологие склоны насыщены тушевой «зеленью», на фоне гор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листа парят птицы. Диссонансом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ого величия пейзажной картины служит длинное зигзагообразное ограждение, возведенное волей политиков. Тихое размышление автора звучит как некая константа: «Птицы парят в облаках туда и обратно, туда и обратно... Парят без ненависти, раздоров или тоски», - и вносит понимание происходящего...

С 1990-х творчество художника отличается ёмкий сюжет, мини-маллистичный и обобщенный рисунок, неотделимый от меткого и лаконичного текста. В работах художника, многоплановых, с разнообразием сюжетов,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ны все лучшие черты, присущие корейскому искусству: мудрая простота, «упрощение» изображения до его пластического символа, одухотворенность. Вся сила полноты миропредставления и ее многосложности И Чоль Су осмыслена и перенесена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философскую плоскость найденного им естественного мира, где главенствует «мудрое вдохновение», наполненное светом знания, тишины и размышления.

Хай Ок Дя, гл.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ОХМ

День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4 декабря – ИА РУСКОР

Конференцию, посвященную 160-летию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140-летию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отмечающиеся в 2024 году, провели МОО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и Ле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ей, при поддержке Комитета по внешним связям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Она состоялась в смешанном формате, что дало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также аудитории из сопредельных России территорий Центральной и Средней Азии.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доклады ученых-корееведов и обществоведов: доктор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Сергея Курбанова –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предпосылки корейской иммиграции на рус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доцент Школы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НИУ-ВШЭ Жанны Сон – «От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до реабилит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по внешним связям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Вячеслава Калганова –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Ким — золотой фонд советской разведки», главного редактора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портала корейцев СНГ ARIRANG.RU (г. Москва) Дмитрия Шина – «Участие братьев Ким в крымском подполье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ел 10-й музыкальный конкурс "Sakhalin K-pop 2023"

1 декабря в актовом зал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остоялось одно из главных событий года для поклонников K-pop культуры на острове – 10-й юбилейный фестиваль "Sakhalin K-pop 2023". Организаторы мероприятия – кафедра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М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 предоставили гостям мероприяти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удовольствие от ярких выступлений и любимой музыки.

Начало k-pop фестиваля было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18.00, однако еще задолго до начала мероприятия актовый зал был заполнен поклонниками жанра, с нетерпением ожидающими выступлений от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Гостей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а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Эльвира Лим. Она рассказала предысторию фестиваля Sakhalin K-pop,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ла публике организаторов и жюри фестиваля. В жюри конкурса вошли самые компетент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из числа педагогов вокальных и танцев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танца и вокала,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еров фестивалей предыдущих лет.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представили публике 8 вокальных и 15 танцевальных выступлений, каждое из которых сопровождалось бурными овациями зрителей. Находясь в этот вечер в 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было невозможно остаться равнодушным, участники фестиваля, выходя на сцену, прикладывали все усилия, чтобы песней или танцем очаровать публику. Кроме наслаждения от любимой музыки и танцев, каждый из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мог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лотерее и викторинах, где в качестве призов вручались сертификаты и альбомы популярных K-pop артистов. Также организаторы фестиваля устроили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танцевальный мастер-класс от Александры Дрёмовой – победителя и участницы всех 10 танцевальных конкурсов K-pop, педагога танцевальной школы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Slow Motion.

Жюри отметило потрясающий уровень выступления каждого участника фестиваля, выбор победителей оказался отнюдь не лёгкой задачей. В разделе вокал первое место заслуженно отдали Еве Островской, а победителями танцевальной конкурса стали участники коллектива «No next».

Думается, неповторимая атмосфера 10-го му-



зыкального фестиваля "Sakhalin K-pop 2023" надолго останется в памяти участников и зрителей этого масштабного события.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Фото: ЛИ Е СИК

Форум ректоров ведущи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России и Коре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28 ноября – ИА РУСКОР

Форум «Диалог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Ассоциация ведущи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России и СПбГУ провели X Форум ректоров ведущи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Его темой в этом году стала подготовк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адров, эффектив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кооперац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ндустрии и бизнеса, а также реформы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более 4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узов двух стран.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председатель российского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ДРПК, ректор СПбГУ членкорреспондент РАН Николай Кропачев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на то, что тематика выступлений затрагивает опыт российски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в области слияния вузов, чт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запросу со стороны корейских коллег.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форума «ДРПК», экс-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и Ли Кюхён отметил, что ежегодное проведени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есяти лет такого масштабного и важ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как Форум ректоров, — заслуга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ов и участников. «Важнейшей задачей является способность вузов реагировать на социа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в условиях сокращения численности молодого населения и изменение структуры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подчеркнул господин Ли Кюхён. — Убежден, что вузы,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е на конкретные регионы, должны инвестировать больше в образование, чтобы помочь талантам вносить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локальных отрасл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сообществ. Для решения этой задачи нужны мер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Встреча ректоров университетов,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на вершине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го мира и молодеж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обеих странах,

значима сама по себе. Мы гордимся тем, что за это время смогли сделать многое: мы обмениваемся опытом, определяем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способствуем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Руководитель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Образование и наука»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ректор ТОГУ Юрий Марфин отметил, что облик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аших стран меняется: эти трансформации являются ответом на изменения в экономике, обществе и политике. «Мы как представители университетов должны не просто следовать этим изменениям, но предугадывать их и обеспечивать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азвитие как самих вузов, так и государств».

В свою очередь, руководитель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Образование и наука» с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почетный рект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Сонгюнгван Чон Кюсан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на то, что форум сохраняет свой формат и регуляр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заседаний благодаря председателям координационных комитетов ДРПК, несмотря на серьезные внешние вызовы и трудност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Корею вопросы слияния университетов под названи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Global» имеют для нас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это обеспечивает жизнеспособность провинциаль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а с другой — позволяет готовить инновационные кадры для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бизнеса.

По мнению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рейского совета по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му образованию, ректора Университета Тонсо Чан Чегука, обмен опытом и обсуждение успешных примеро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зволяют сформировать понимание будущего восточ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 дискуссия на тему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еализации круп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оектов.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Путин: Россия готова к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отношений с РК

«От официального Сеула зависит, удастся ли вернуть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а траекторию столь выгодного для наших стран и народов партнёрства», -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ринимая верительные грамоты от нового посла РК в России Ли До Хуна. Церемония состоялась 4 декабря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ом зале Большого Кремлёвского дворца. Российский лидер отметил, что отношения Москвы и Сеула переживают не лучшие времена. «Ещё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эти отношения развивались самым конструктивным образом и носили обоюдовыгодный характер, особенно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фере. Мы вместе работали и над политико-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урегулированием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добавил росси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Он принял верительные грамоты от новых послов из 21 страны.

В рамках кадровых перестановок в РК заменены шесть министров

4 декабря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произвёл кадровые перестановк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заменив 6 из 19 министров. Бывший старший секретарь президента п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Чхве Сан Мок назначен вице-премьером, министром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Профессор Кан Чжон Э, бывший ректор же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унмён, назначена министром по делам патриотов и ветеранов. Сон Ми Рён, занимавшая должность старшего науч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экономик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значена министром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Корейской земельной и строительной корпорации Пак Сан У назначен министром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Бывший директор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океанологии Кан До Хён назначен министром морского и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а второ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О Ён Чжу - министром малого, среднего и венчурного бизнеса.

Останки жертвы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вернулись на родину

Останк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солдата, насильственно мобилизованного японскими военными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ернулись 3 декабря на родину. Это произошло через 80 лет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н погиб в бою, -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РК. Останки Чхве Бён Ёна, погибшего в ноябре 1943 года, были идентифицированы экспертам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К и Агентства по учёту военнопленных и пропавших без вести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США в 2019 году. По данным американских экспертов, бой между японской и американской армиями на атолле Тарава в Кирибати, тогдашней колони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был одной из самых кровопролитных битв в Тихом океане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 нём погибли более тысячи принудительно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жителей Кореи, которая в то время находилась под японским колониальным правлением. Вернуть останки погибшего удалось только сейчас, поскольку границы Кирибати были закрыты из-за пандемии COVID-19. 4 декабря останки Чхве Бён Ёна перевезены на его родину, в город Ёнгван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где в тот же день на родовом кладбище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похорон. Сын героя, 81-летний Чхве Гым Су, сказал, что он «более чем счастлив», что похоронил своего отца, который погиб через год после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и отныне сможет посещать его могилу.

Объём онлайн-шопинга достиг в октябре рекордного уровня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бщая сумма онлайн-транзакций достигла в октябре рекордного уровня в 20 трлн 90 млрд вон (15,5 млрд долларов). Это на 11,8% больше, чем в том же меся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Рост произошёл в основном за счёт оплат туристических и транспортных услуг, которые выросли на 28,6%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и составили 2 трлн 90 млрд вон (1,5 млрд долларов). Продажи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и напитков выросли на 15,6%, электронных товарных купонов - на 48,9%. Доля покупок, оплаченных через смартфоны, планшеты и другие мобильные устройства, составила 73,2% от общей суммы онлайн-транзакций, что на 1,2% мен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Фильм «Весна в Сеуле» посмотрели более 5 млн человек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утро 5 декабря фильм «Весна в Сеуле» режиссёра Ким Сон Су посмотрели более 5 млн человек.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M Plus Entertainment, рекордный показатель достигнут на шестой день демонстрации фильма.. «Весна в Сеуле» - это первый фильм о событиях 12 декабря 1979 года, когда в РК произошёл военный переворот, и к власти пришёл Чон Ду Хван.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зрителей фильма «Весна в Сеуле» приходится н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околения MZ,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40 лет.

RKI

Алматы. Столетие «Корё ильбо»

Мне посчастливилось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торж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енных столетию газеты «Корё ильбо», преемницы «Авангард»-«Ленин кичи». Торжества проходили в Алматы 21 ноября. Казалось бы, один день, но он был настолько насыщен, что его можно было бы виртуально разделить н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Собственно, три физических дня были точно, это приезд 20 ноября, с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21-го и отъезд 22 ноября.

Итак, попробую по порядку изложить, что было в те дни.

День прилета, 20 ноября. Наш самолет приземлился в Алматы часов пять вечера, пока прошли все процедуры, на улице уже стемнело и я ожидал, что нас повезут в гостиницу. А встречал нас сам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Корё ильбо» Константин Ким с сотрудницами Александрой Ким и Дианой Сон,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ами нового, юного поколения корё сарам, владеющие языками, в том числе и корейским. Когда нас усадили в машину, кстати, мы, это — Ким Владимир Наумович, Ан Виктор Иванович, Ким Брутт Иннокентьевич и я, Хан В. В., водитель объявил, что мы едем в горы, в какой-то модный курорт. Мы не сопротивлялись, просто полностью отдались распорядителям, мало представляя, что нас ждет впереди.

А впереди нас ждал шикарный ресторан, с шикарными гостями, одно только то, что нас встречал Юрий Андреевич Цхай, председатель попечительского Совета АКК, встречу можно отнести к высшему уровню приема. Юрий Германович Шин,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встретил нас как дорогих гостей. Ни Любовь Августовн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тоже приветствовала нас. Рядом находился Пак Артур Николаевич, уважаемый гость из Бишкек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ления ООККР, который также искренне приветствовал нас. В зале встретил Германа Николаевича Кима с профессором Чон Дук Чоном, известным корейским литературоведом, Дмитрием Шина и Жанну Григорьевну Сон из Москвы, Дмитрия Пака, члена Общества Хон Бом До, который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резко ответил на снос бюста Хон Бом До, Евгению Цхай с каллиграфом Кан Бен Ином, автором нового логотипа «Корё ильбо» и дизайнером Хон Дон Воном.

В зале уже были Ли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 и Сон Владимир Ефимович из Астаны, друзья, коллеги, чувства к которым не остывают со временем, а напротив, приобретают новые, неувлимые, душевные краски.

На улице было холодно, а в зале тепло, уютно, весело. Кроме перечисленных лиц в зале бы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ов АКК, накануне проводившие II Пленум Правления АКК.

По уровню дружеского вечера можно было представить с какой щедростью 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ом редакция «Корё ильбо» и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одготовилась к юбилейным торжествам газеты.

21-го ноября, утро. **Форум этнических СМИ, посвященный 100-летию газеты «Корё ильбо».** Форум проходил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здании Дома дружбы Алматы.

Форум открыл Ким Константин Станиславович,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Корё ильбо».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выступил Шин Юрий Германович,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осле слово был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Роману Ухеновичу Киму, члену Попечительского Совета АКК.

Затем, Константин Ким объявил о награждении АКК бывших и нынешних сотрудников газеты, а также деятелей, внесших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100-летию газеты.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стала главной частью Форума, она, как бы, затмила вторую часть из-за бурной реакции собравшихся на каждое награждение. Церемонию проводил Шин Юрий Германович,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Вторая часть Форума была посвящена теме: Роль этнических СМИ в построении Нового Казахстана. Вел секцию д.и.н. Герман Николаевич Ким.

С докладами выступили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Дойче альгемайне цайтунг» Олеся Клименко, про-



фессор,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Георгий Кан,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твор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Медиа сарам» Евгения Цхай, доцент кафедры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Высшей школы экономики Жанна Сон,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алентин Чен; заведующий Ташкентским корпунктом газеты «Ленин кичи» Владимир Ким.

Кроме докладов была еще презентация книги «История газеты «Корё ильбо» в биографиях и лицах», которую провел автор Дмитрий Шин. На мой взгляд, представление книги стало важнейшей частью Форума.

Из прений запомнил выступление старейшины коре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доктора техн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а, заслуженного деятеля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Казахстана Ивана Тимофеевича Пака, который напомнил о колоссальном влиянии вид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еятеля,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Казахской ССР, депутат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КазССР, профессора, доктора экономических наук Кима Ильи Лукича, на переизд «Ленин кичи» из Кызыл-Орды в Алма-Ату, когда решались многие, жизненно важные проблемы редакции и коллектива газеты, в связи с их обеспечением квартирами в столице и многими другими задачами.

В прениях слово взял Брутт Ким для преподнесения уникального архивного документа — командировочный лист, подписанный отв. редактором «Авангарда» Ли Шенгом, о подписной кампании. В момент празднования 100-летия газеты, такой жест дорогого стоит.

На Форуме профессор Чон Дук Чон провел церемонию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рассказов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это было трогательно.

И еще на Форуме был подписан Меморандум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рамках един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СМИ корейцев стран СНГ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окумент подписали: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Коре ильбо» Константин Ким,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твор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MEDIA SARAM Евгения Цхай,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алентин Сергеевич Чен,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портала ARIRANG. RU Дмитрий Шин,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портала «Корё сарам» Владислав Викторович Хан,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Ильчи» Юрий Ким и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Ханин ильбо» Ким Сан Ук.

На Форуме встретил многих друзей, авторов и героев сайта «Корё сарам», такие встречи вдохновляют.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Форума, на обеде, Жанна Григорьевна Сон тоже преподнесла Константину Киму уникальный подарок — оцифрованную газету «Авангард» за тридцатые годы, вплоть до сам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1937 г.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Владислав Хан, сайт «Коре сарам»)

В Южной Корее робот ранил россиянку

В Южной Корее случилось очередное происшествие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в котором люди пострадали от действий робота, причем ранения получила гражданка Росси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Управлении по борьбе с пожарами и чрезвычайными ситуациями по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ая Кёнсан, инцидент произошел вечером в субботу, 2 декабря, на заводе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автомобильных запчастей, распо-

ложенном в пригороде Кёнчжу, что на юго-востоке страны. 44-летняя россиянка, имя которой не называется, работала на конвейере, каким-то образом зацепилась за робота и получила серьезные ранения. У нее пострадал левый глаз и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грудной клетки.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она находится в больнице, где ею занимаются врачи.

Напомним, что примерно ме-

сяц назад также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 одном из складов погиб рабочий, которого робот-манипулятор принял за коробку с продуктами. Роботизированная рука-манипулятор прижала человека к конвейеру, из-за чего сильно пострадали лицо и грудь. Рабочего срочно доставили в больницу, но врачи не смогли спасти его, вскоре он скончалс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Более 20 новых крупных спортобъектов появилос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последние 5 л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вело итоги работы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порт – норма жизни» нац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Ф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За это врем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строили и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ли более 20 спортобъектов.

Только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троили и запустили в работу лыжно-биатлонный комплекс «Триумф», стадион в Томари, хоккейный корт в Курильске, универсальный тренировочный 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 с ледовой ареной СШ «Кристалл», водно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 «Аква-Сити», ФОК с бассейном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стадион и ФОК в Горнозаводске, спортзал в Шахтёрске, трамплин К-40 в Углегорске, ФОКОТы в Быкове, Долинске, Смирных, Тымовском, стадион в Поронайске, ФОК в Холмске, хоккейный корт в с. Костромском, лыжероллерную трассу в селе Восток, ФОК с бассейном в Аниве, спорткомплекс в Ильинском, приобрели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ый центр «Восток».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ся новый Центр единоборств,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завершитс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спортшколы восточных видов.

– Реконструкция спортшколы – это очень важное и значимое для нас событие. Благодаря ему площадь учреждения увеличилась в три раза, а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 в два. У нас появилось четыре спортзала, мужские и женские раздевалки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и тренеров, медицинский кабинет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Уверен, в новых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ях наши сотрудники и воспитанники будут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как дома,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спортшколы восточных видов единоборств, прези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аратэ Леонид Ким.

Сахалинская спортив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позволяет принимать круп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не только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но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Так, в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на острове проходили I зим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Кубок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Far East Cup», этап Кубка мира по Всемирному Паралимпийскому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Сахалин-2020», I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урнир по плаванию «Сахастерс-2023» в категории «Мастерс», а в 2025 го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имет зимние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е молодежные игры.

– Россия – спортивная держава, которая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 развитию как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так и массового спорта.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мы предоставляем максима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спортсменам. В то же время на островах проводится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массовых физкультурных и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к которым ежегодно присоединяются около 30 тысяч человек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и уровня подготовки,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Подшивалов.

Тольк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егионе провели более 100 физ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числе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у островитян – всероссийский полумарафон «ЗаБег.РФ», лыжный марафон памяти И.П. Фархутдинова, Троицкий лыжный марафон, фестиваль по мотоциклетному спорту No place to run, зимняя «Декада спорт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бега «Кросс Нации» и другие.

Свыше 930 гектаров леса высадили с начала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ысадили деревья на площади свыше 930 гектаров. Естественное лесо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выполнено на площади 2,3 тысячи гектаров. При этом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показатель еще подрастет – арендаторы лесных участков ведут работы по содействию естественному лесо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В этом году достигнуты плановые значения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Ряд показателей превосходит значения прошлых лет. Так, площадь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лесо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превысила прошлогоднюю на 95 гектаров, площадь агротехнического ухода за лесными культурами – на 72 гектара. В этом году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 национ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Экология» достиг показателя «Отношение площади лесо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 лесоразведения к площади вырубленных и погибших лесных насаждений» с перевыполнением почти в 2,5 раз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ман Остапенко.

Для лесо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используют деревья хвойных пород – в основном лиственницу и ель аянскую. Эти пород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читаются лесобразующими и преобладают в лесном фонде, потому что хорошо приживаются и подходят для островного климата.

В регионе удалось сформировать около полутонны запаса семян лесных растений. С учетом дополнения лесных культур в этом году высадили более трех миллионов семян хвойных пород. Столько же в питомниках выращено и хвойных сеянце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и лесовосстановлени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лесов, в основном, используют материалы из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хозяйств. Посадочный материал выращивают в том числе и в Юго-Западном лесном хозяйстве.

– В нашем питомнике растим ель аянскую и лиственницу курильскую,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хозяйства Николай Сугачев. – Недавно обзавелись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техникой – сеялкой лес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культиватором с прикормоч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Новую сеялку в этом году использовали впервые. Техника легка

в управлении, настройках и регулировках.

В лидерах – Смирныховский район. Там искусственным лесо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охватили 230 гектаров.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 Ноглик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В северном районе посадили лес на площади 180 гектаров. Почти по 40 гектаров нового леса появилось в Холмском и Макаровском районах. В Тымовском – 20 гектаров.

Также новые деревья охотно сажают неравнодушные островитяне, участвуя в экологических акциях. Помимо традиционных «Сохраним лес» и «Сад памяти» в этом году в школ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ошла новая акция «Дерево класса».

Напомним,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Экология» инициирован Президентом страны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В числе целей нацпроекта – сохранение и увеличение лесных богатств России.

Талантливые школьники из Корсакова будут обучаться в центре для одаренных детей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обеспеч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талантливым школьникам из Корсакова обучаться в центре для одаренных детей, который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заработает на территории УТЦ «Восток». Глава региона встретился с учащимися, их родителями и педагогами в рамках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

В школе № 6 главе региона показали результат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который провели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е образования». В коридорах и классах провели масштабные отделочные работы. Кроме того, в учебном учреждении обновили мебель,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пищеблока, оборудовали кабинет физики, закупили моноблоки и интерактивные панели. Все это позволяет организовать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учебный процесс как для педагогов, так и для учащихся.

– У нас в школе есть профильный класс инженерн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десятиклассники углубленно изучают физику и математику, увеличено количество часов по черчению. Активно работаем с будущими потенциальными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 строитель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водоканалом. Наши ребята уже побывали на экскурсиях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порту, на объектах новых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также были в СахГУ на лекциях и посмотрели инженерную базу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все это буквально за пару месяцев, – рассказала одна из педагогов.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помнил,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сейчас создается центр для одаренных детей. Его откроют 1 сентября 2024 года на базе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го центра «Восток». По различным программам направлений «Наука», «Искусство» и «Спорт» в нем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не менее 3500 школьников в год в возрасте от 12 до 18 лет. Губернатор поручил профильным ведомствам организовать отбор в том числе и среди корсаков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Также губернатор посетил казачий класс, который организовали в 6-й школе.

– Кроме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у ребят есть строевая подготовка, история казачества. Масса занятий по шахматам, рисованию, творческое мастерство. В рамках внеклассной работы мы побывали почти во всех музеях Корсаков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нимаемся краеведением, ходим в походы, – рассказала учитель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В школе, как и в других, организованы занятия робототехникой. Учащиеся сами собирают беспилотники, программируют и учатся управлять ими.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проводят и «Навигаторы детства». Одна из них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после активных опросов о желаемых кружках и направлений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разу 5 родителей официально трудоустроились педагогами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 Школа производит хорошее впечатление. Выполнен масштабный ремонт в помещениях. Надо ещ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фасад зда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ручения даны. А вообщ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процесс организован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в том числе по различным нов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У ребят больши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своих способностей,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создавать их, чтобы молодежь оставалась на островах,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встречи воспитанники казачьего класса попросили у главы региона организовать выезд на «Атаманскую елку»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В новогодние праздники их желание будет исполнено.

Еще 24 торговые точки экономформат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открылись в 2023 году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торговая сеть экономформата на островах насчитывает 771 объект. Торговая наценка на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товары там не превышает 15 процентов – это вдвое меньше среднестатистической наценки по региону.

Расширять и развивать торговую сеть с более доступными ценами поруч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Это часть губернаторского проекта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годня четверть всего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в рознице реализуется через сеть экономформата.

Она объединяет социальные магазины, фирменные торговые точки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 мобильные объекты (купавы и автолавки). Сегодн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работают 154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а, треть из них –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В этом году новые магазины открылись в Невельске и Холмске, в селах Вал Ногликского района, Ясное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осток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а, Рыбацкое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и Вторая Падь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а также в Березняках и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которые входят в состав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 Статус социального магазина получили весной этого года.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приток покупателей увеличился. Стараемся держать наценку на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продукты от 10 до 15 процентов и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ем с нашими сахалинскими 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Также такой статус выгоден и нам, как магазину, так как возмещается часть затрат по аренде помещения и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луг,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социального магазина «Лукоморье» Сергей Лукьяненко.

Фирменная торговая сеть сахалинских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сейчас включает 491 объект – на 15 точек больше, чем в начале года.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оизводители активно расширяют географию торговли. В этом году открылись фирменные объекты в Анивском, Александровском-Сахалинском, Макаров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Поронайском, Охинском, Смирныховском, Томаринском, Углегорском 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а такж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Долго ждали открытия магазина «Мерси Агро» в Углегорске, а то везде открываются, а наш район все обходили стороной. Теперь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купать свежую свинину. И цены очень демократичные – рассказал житель Углегорска Василий Болотин.

Мобильная торговля, в том числе объекты региональных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которые обеспечивают жителей всех район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вежими продуктами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ключает 126 автолавок и купав. Из них 86 единиц приобретены благодар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За этот год появилось ещё 4 объекта мобильной торговли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115 дворов и 248 подъездов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в этом году

Во время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ход работ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В 2023 году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8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еще 107 – охватили текущими работами. 248 подъездов преобразились после косметического ремонта, остаются в работе еще 11 объектов. Работы продолжатся 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 улице 2-й микрорайон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двор дома №3. Здесь заасфальтировали дворовой проезд и тротуары. Предусмотрели низкий бортовой камень и тактильную плитку для жителей с ограничениями по здоровью. А благодаря федер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1000 дворов» на придом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появился сквер с детской игровой площадкой и зоной отдыха для взрослых.

– 2-й микрорайон раньше был заброшенный, на нас никто не обращал внимания. А сейчас посмотрите, какая красота! Люди едут сюда просто отдохнуть. У нас безопасно, машины остаются вдалеке, никаких промышленных объектов в округе,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Корсакова Галина Чернышенко.

А в доме №6 на улице Краснофлотской преобразили подъезды. В одном из них на стенах появился тропический пейзаж на закате.

– Мы побелили и покрасили стены, заменили двери и почтовые ящики, установили кабель-каналы, сделали решетки на окнах. А жители проявили инициативу и продолжили творить красоту. Лестничные клетку украсили цветами. Попросили сделать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роспись,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управляющей компании Ольга Громова.

Работа по косметическому ремонту подъездов коммуналь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активизировали благодаря субсидии,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й можно возместить половину затрат. Это значимая часть губернаторской программы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 Стоит задача – за два года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все дворы и подъезды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которые в этом нуждаются. Работы по дворам уже завершились. Ремонт в подъездах продолжается. В этом году мы ремонтируем 4 тысячи подъездов, остальное сделаем в 2024 году. Мы хотим, чтобы в каждом доме на островах было уютно и комфортно,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амые ухоженные объекты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Подъезд образцового содержания», который с мая проходит в каждом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Уже в декабре среди победителей ежемесячных конкурсов, которых определяют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иложении Острова.65, выберут лучшие подъезды в четырех номинациях: самый уютный, самый зеленый, самый технологичный и самый креативный подъезд.

Отметим,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ройдет в 4 дворах, текущими работами охватят 130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в райцентре и селах.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162 подъезда.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губернатор проконтролировал и ход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улицы Артиллерийской. Здесь предстоит заасфальтировать около 800 метров дорожного полотна.

– Мы начали работы на опережение, чтобы люди из нового микрорайона ходили и ездили не по грязи, а по хорошей дороге. В этом году сделаем бордюры, отсыпем дорожку щебнем. Весной и летом продолжим работы. Сделаем освещение, автобусные павильоны, тротуары,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компании-подрядчика Грайр Степанян.

Работы стартовали в июне, завершиться должны летом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외동포청, 영사민원 알림톡 서비스 시작

재외동포, 해외 휴대전화로도 민원 처리현황 바로 확인 가능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본인 휴대전화를 통해 영사민원 처리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알림톡 서비스를 12월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동포들은 국내에서는 일반화된 민원처리 알림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로 영사민원 처리현황을 확인해야 했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외공관에 신청한 영사민원 처리현황을 해외 휴대전화로도 발송할 수 있는 알림톡 서비스를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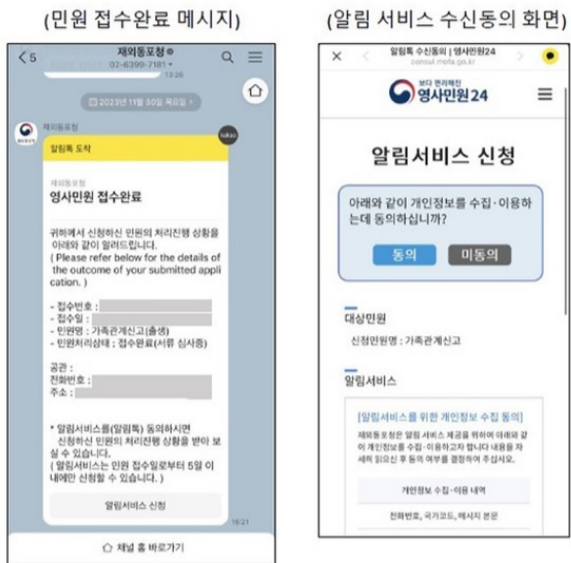
이에 따라 재외동포는 재외공관 영사민원 접수 시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면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각 단계의 처리현황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초기에는 국적 및 가족 관계 신고에 대한 민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순차적으로 민원 업무가 확대될 예정이다.

센터는 알림톡 외에도 재외동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인, 왓츠앱 등 다양한 채널 추가도 검토 중이다.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이번 서비스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외동포들이 내국민 수준의 민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사민원 알림톡 수신 화면]



영사민원 알림톡 예시 (사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실무위 개최 신임 민간위원 14명 위촉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재외동포청은 1일 '제32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회의를 열고 신임 민간위원 14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실무위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체다.

실무위 회의는 올해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됐다.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이 참석했다.

민간 위원으로는 박기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단장과 강성철 연합뉴스 동포·다문화부 기자, 송석원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정은 한성대 이민다문화전공 교수, 이영호 세계한인네트워크 고문 등이 위촉됐다.

신임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한 이기철 청장은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성과를 강조하면서 5개년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년)을 소개했다.

이 청장은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이어질 정책이 재외동포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들은 이 기본 계획을 토대로 각 부처 재외동포 정책 추진 현황과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인구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동포 정책을 추진하고, 사할린동포처럼 강제징용 등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재외동포들에 대한 포용적 동포 정책을 지속해나가는 의견도 제시됐다.

2023년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 인천서 개최

전 세계 34개국 110여 중등학생 초청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사장 임영담)은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인천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한국어, 안녕!'을 주제로 2023년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를 개최했다.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는 2019년 아세안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매년 대상 국가를 확대해 올해 전 세계 청소년을 초청해 진행되고 있다.



2023년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 단체사진 (사진 국제한국어교육재단)

이번 연수는 참가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교육 연수를 위해 반편성 시험 및 언어 수준에 맞는 한국어 수업 진행과 한국 문학 작품 감상 발표회, 문화예술공연 및 한국 역사·문화 체험 등 한국어를 통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전 세계 34개 국가에서 110여 명의 중등 학생들이 참가해 한국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문을 발표했다.

먼저 사전연수 기간에는 국가별 시차를 고려해 10개 조로 나눠, 한국 문학 작품(시·소설·수필)을 읽고 감상문 발표도 하고, 서로 다른 국가의 참가자들과 함께 한국어와 한국 역사·문화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진행했다.

본연수는 사전연수를 통해 선발된 각 급별(초급 10명, 중급 10명) 총 20명이 본선에 참가해 10명이 본상 수상했다. 본상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2명, 국회 교육위원장상 2명, 국제한국어교육재단 이사장상 2명, 하나은행장상 2명, 특별상 2명에게 주어졌다.

영예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중등부 초급 부문은 리아 시비찬(호주 남호주 언어학교), 중급은 파나틴 짜라뽀야논(태국 수안꼴람위타알라이 논타부리학교)이 각각 수상했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 이사장상은 중등부 주마에바 수미야(초급 타지키스탄 1번 영재학교) 중급은 몽흐투르 오랑거(몽골 제7번 초·중고등학교)가 각각 수상했다.

중등부 초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자인 리아 시비찬(남호주 언어학교)은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읽고 자신의 러브스토리와 소설 속에서의 옥희 어머니를 비유하며 1935년

한국문학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보수적인 사람의 아쉬움과 그리움 그리고 아름다움을 발표했다.

중등부 중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자인 파나틴 짜라뽀야논(태국 수안꼴람위타알라이 논타부리학교)은 이양하의 '나무'를 읽고 수천 번의 비와 눈, 바람을 이겨내고도 흔들리지 않고 큰 나무가 되기 위해 견디는 나무처럼, 수상자 자신도 어려운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꿈을 실현해 한국 대학에 입학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특히 이번 청소년 연수에 인솔 교사로 참가한 베트남의 쩐 응웬 디엠 티 선생님은 2019년 1회 연수 당시에는 학생으로 참가했는데, 올해는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는 교사가 돼 베트남 학생들을 인솔하고 연수에 참가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맞춤형 해외 초·중등 한국어 수업과 한국어 시 짓기, 서예, 한식 체험-김밥 만들기 등을 진행했고, 축하 행사 첫 무대는 훈민정음 서문을 노래한 뮤지컬 세종 1446 중에서 '그대의 길을 따르리'를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한 목소리로 열창해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2부는 참가자들의 열띤 케이팝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한류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박칼린 뮤지컬 감독과 이금희 아나운서, 뮤지컬배우 리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2023년 대회에서는 화사의 '칠리(Chili)'를 환상적인 춤으로 표현한 태국의 짜라뽀야논학교의 찬파건 락차늑이 '최고공연상'을 수상했다.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협력센터, CIS 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12월 4일부터 5주간... 러시아, 우즈벡, 카자흐, 벨라루스서 25명 참가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2023 CIS 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를 12월 4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5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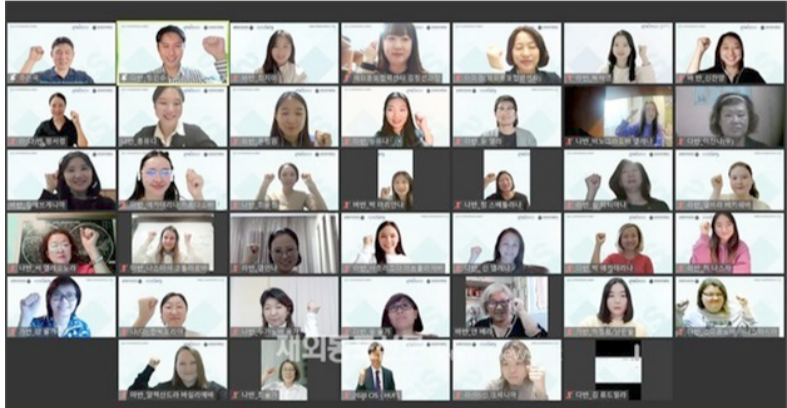
재외동포사회의 세대

교체에 따른 차세대 민족교육자 육성과 한국어교사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주관하며,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4개국의 고려인 한국어교사 등 25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사전 진단평가를 통해 한국어 능력별 분반 수업에 참여하며, 듣기·읽기·쓰기·말하기 등의 한국어 교수법 강의, 한국 역사·문화 교수법, 교육실습 등 한국어 교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수준별 맞춤형 수업과 실습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번 연수는 온라인 연수 4주와 초청연수 1주를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연수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되며,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시행되는 모국방문 연수에서는 청와대, 한글박물관 등 한국의 역사·문화지 탐방, 재외동포 고려인 이주사 강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은 "CIS 지역 내 한국어 교사는 고려인 동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길러내고 우리말과 문화를 후대에 전파하는 위대한 영웅이자 한글 지킴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어 교사들이 전문적인 교수법 습득 외에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160주년의 이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려인 사회가 글로벌 인재육성의 보고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개최식에 참여한 한국어 교사들 (사진 재외동포협력센터)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В финал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остязания соревновались 265 управленцев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и педагогов, набравших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баллов на региональных этапах,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нкурса.

Конкурс проходил на площадке Президентской академии (РАНХиГС). Проект «Флагманы образования» реализуется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оциальные лифты для каждого» нацпроекта «Образование»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просвещения России.

По словам Натальи Бровкиной, финал состязания стал уникальным событием и подарил возможност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опытными педагогами и управленцами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Участники «Флагманов образования» не только прошли конкурсные испытания, но и погрузились в просветитель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а педагоги и управленцы пополнили кадровый резерв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олучили призы от партнеров проекта.

В дистанционном отборе конкурс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4 тысяч руководителей из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и свыше 57 тысяч учителей. В очные региональные полуфиналы вышли 2183 конкурсанта.

코르사코프 170주년 기념 영화, 모스크바 경연에서 시상

코르사코프 탄생 17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가 2023년 미디어리더 경연에서 2위를 차지했다. 시상식이 12월 1일(금) 모스크바에서 열렸다고 코르사코프 시청 측이 전했다.

이 작품은 코르사코프 시청정부 홍보실 직원들이 '여기서 해돋이가 시작된다'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국가적, 지역적 구조의 우수 영상' 부문에 출전했다.

1위는 유즈노 우랄 국립대학이 차지했고, 3위는 오렌부르크 행정부가 차지했다.

매해 언론사의 협찬으로 '미디어리더' 전문적인 경연은 별

써 7회째 개최되고 있다.

올해 경연 심사위원들은 카자흐스탄과 벨로루스를 비롯해 러시아 각 지역의 정부기관과 기업대표들이 기획 제작한 443개의 출품작들을 검토했다.

경연의 수상과 최우수상 부문에 54개의 작품이 오른 가운데 이 작품들은 18개 부문들에서 각각 상을 받게됐다.

Фильм к 170-летию Корсакова отметили на конкурсе в Москве

Фильм, посвященный 170-летию Корсакова, занял второе место на конкурсе Медиалидер-2023. Награждение прошло 1 декабря в Москве,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Фильм «Здесь начинается рассвет» сняли сотрудники корсаковской пресс-службы. Фильм представили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ее виде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муниципальной структуры». Первое и третье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и заняли Южно-Уральский госуниверситет 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Оренбург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Ежегодны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конкурс корпоративных СМИ «Медиалидер» проводится уже седьмой раз. В этом году членами жюри было рассмотрено 443 конкурсные работы — свои проекты представ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изнеса и госструктур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России, а также из Казахстана и Белоруссии. В число победителей и отличников конкурса вошли только 54 проекта, которые разделили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в 18 номинациях.

사할린 주민들에게 연방보안국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증가 경고

러시아 연방보안국 사할린 지부가 지역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건을 적발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은행 직원의 사기 행위에 대해 불확실한 정보를 순진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러시아 연방보안국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도록 하기 위한 특수 장비를 이용하기 까지 한다. 이들은 러시아 연방보안국 직원이라 사칭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하며, 개인 정보를 캐내고, 신용카드의 압

호, 핀코드 및 은행 정보를 알아내고, 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러시아 연방보안국 직원이 국민들에게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금융거래를 실행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강조할 만하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만약 러시아 연방보안국 직원이라 사칭하는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금융거래를 실행하도록 요청할 때는 즉시 지역 경찰서로 이를 신고하거나 전화 102로 신고하면 된다.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предупредили о росте мошенничества по телефону от имени ФСБ

Управление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наружило случаи мошенничества, которые происходят в регионе от имени ФСБ России. Злоумышленники используют специальные техн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чтобы сделать входящий звонок от номера ФСБ России и убедить наивных граждан в недостовер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мошеннических действиях сотрудников банка. Они выступают под видом сотрудников ФСБ России и пытаются уговорить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раскрыть личные данные, пароли, пин-коды и банковские реквизиты, а также осуществить денежные переводы на "безопасные" банковские счета.

Стоит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сотрудники ФСБ России не имеют права просить граждан совершать финансовые операции, включая переводы денег на счета или оформление кредит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в банках. Мы призываем граждан не поддаваться влиянию телефонных мошенников. Если вам неизвестные люди представляются сотрудниками ФСБ России и просят совершить финансовые операции, сразу прервите разговор и сообщите об этом в полицию по месту пребывания или набрав номер 102 с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646 руб. 9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Реклам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9-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